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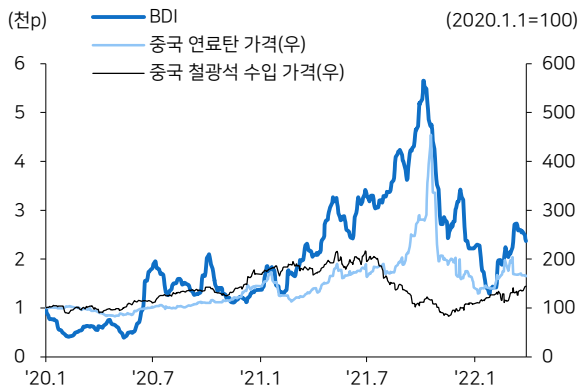


2022. 3. 31(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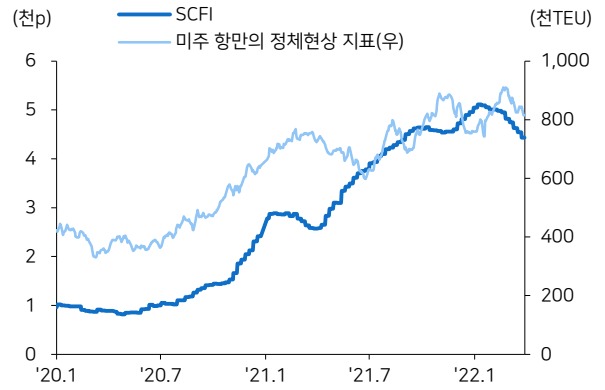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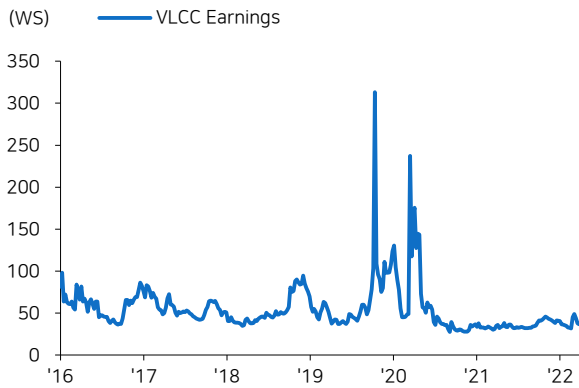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369.0p(-4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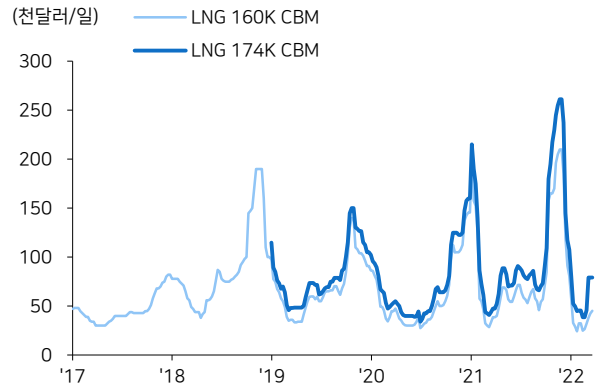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434.1(-106.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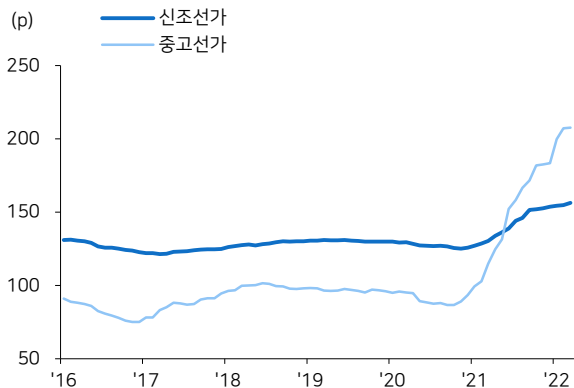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36.5(-1.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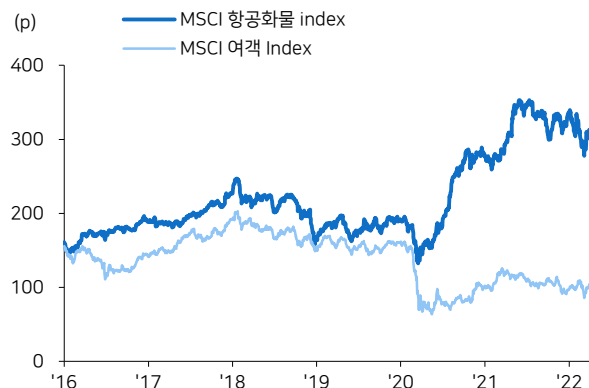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5.3p(+2.8p WoW) 79.3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6p(+0.5p WoW) 207.6p(+0.0p WoW)



항공시장 지표 309.3p(-3.9p DoD) 104.2p(+0.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nprecedented' shrinkage in container ship charter market fleet

Alphaliner에 따르면 최근 20개월간 컨테이너선 용선시장은 급속하게 수축했다고 보도됨. 2020년 8월부터 현재 3월까지 총 179만 TEU만이 용선됐다고 보도됨. 용선료가 급상승하며 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용선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설명함. MSC가 가장 선대확보에 적극적이었는데, 636,900TEU에 달하는 중고선대를 매입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MSC set to splash more than \$3.4bn on panamax container ship spree

MSC가 기존 18척 LNG DF 파나마식 컨테이너선에서 28척으로 발주계획을 확대함. 총 34억달러규모로 3개 조선소간 나눠서 건조할 계획임. 중국 조선소가 8,000TEU급 22척, 현대중공업이 7,7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6척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중국에서 건조되는 선박들은 2024-25년 인도될 예정임. 한편, Zim, CMA CGM, Hapag-Lloyd, PIL 등도 7,000~8,000TEU급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LNG선 용선주, 용선 기간을 길게

LNG선 용선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선박 용선기간을 아예 5~10년으로 하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는데다 독립 선주사의 선박을 용선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운임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Poten says FSRUs are 'no quick fix' as Europe dives for LNG supply

Poten에 따르면 FSRU는 유럽 LNG공급난의 빠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보도됨. FSRU가 가동될 때까지는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단기적인 해결방법도 없다고 설명함. 현재 아시아, 유럽 모두 FSRU 수요가 넘치는데, 유럽 수요자들이 아시아의 장기 LNG 계약자들을 제치고 FSRU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함. 한편, 미국이 약속한 추가 150CBM LNG 공급은 모든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6-1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함. (Tradewinds)

베트남, 관광 재개 후 국제선 운항 증가

베트남 정부의 완화된 여행제한 정책으로 베트남 항공사들은 3월말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보도됨. 현지 기준 4월 1일부터 그 동안 시행해오던 VTL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적인 여행범주에 모든 국가를 등재 및 관리하여 여행 제한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한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검사 및 격리는 계속 시행할 예정임. (에어진)

사상 최대 실적 대한항공, 3년 만에 경영성과급 지급

대한항공이 COVID-19 여파로 중단했던 경영성과급을 3년 만에 다시 지급한다고 보도됨. 2021년 항공화물 사업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 기인함. 2022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함. 경영성과급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조선Biz)